

# “부동산 적폐 청산 핵심 국정과제 삼을 것”

### 문재인 대통령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서 강조 “공정한 부동산 질서 확립”... 정치권 협조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적폐 청산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을 접하면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루어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임무를 내지 못했다”면서 “그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와 같은 반

성 위에서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부동산 적폐 청산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LH 직원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 건설사업에 대한 투기 조사에도 정부가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투기 의혹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속 공무원의 투기 여부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며, 제주경찰청도 수사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는 “공직자 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으면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

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합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부미현기자

# 문 대통령, 23일 AZ 백신 공개 접종

### 6월 G7 정상회의 참석 목적 안전성·효과성 논란 불식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개 접종한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김정은 여사가 질병관리청이 마련한 예방 접종 절차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오는 23일 공개적으로 접종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68세, 김정은 여사는 67세다. 질병관리청의 예방 접종 일정에 따르면, 65세~74세 일반인의 접종 기간은 5~6월이지만 대통령 내외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이 예정돼 있어 필수 목적 출국자 예방 접종 절차가 적용됐다.

청와대는 “대통령 내외가 23일 백

신을 접종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접종을 함으로써 일각에서 제기되는 안전성, 효과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출선수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23일은 65세 이상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날이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4일 문 대통령의 백신 접종 일정에 대해 질병관리청 메뉴얼과 외교일정 등을 감안해 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낸 바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1차 접종 후 8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해야 한다. 정상회의 일정에서 역산하면 이달 내 1차 접종이 마무리되어야 한다.

이날 대통령 내외의 백신 접종 시에는 일부 순방 필수 인력도 함께 접종을 하게 된다.

청와대·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 대검 'LH수사' 협력단 설치·운영 나선다

### 영장 청구·수익 환수 등 지원 6대 범죄는 직접 수사 지휘도

대검찰청이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검찰 내 수사협력단을 설치한다.

협력단은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중심의 수사를 지원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중요 범죄 사안에 대해서는 일선 검찰청의 직접수사를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대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 부동산 투기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의 부동산 투기 전담 부장검사 7명이 참석했다.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은 의정부지검·인천지검·고양지검·부천시지검·성남지검·안산지검·안양지검 등이 다. 대검 측에서는 이종근 대검 형사 부장과 김병현 형사1과장, 검찰연구관 2명이 참석했다.

대검은 경찰 중심으로 본격화한 LH 투기 수사와 관련해 수사 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보고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수사협력단은 이종근 부장을 단장으로 김병현 과장·김우 범죄수익환

수과장 등 대검 과장 3명·검찰연구관 3명 등 20명으로 꾸려진다. 협력단은 일선 검찰청의 전담 수사팀·검사 지점, 검찰청과 시도 경찰청 간 핫라인 등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수사 중 환수해야 하는 재산이 확인되면 재판에 넘기기 전이라도 재산 보존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 절차도 지원한다.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개발 부지를 매입하면 부패재산물수법 등에 따라 토지 환수·보전 조치가 가능하다.

협력단은 경찰이 검찰로 넘긴 사건 중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 범죄와 관련된 사안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역할도 맡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와 관련된 법리 검토와 수사 사례 분석·수사 기법 등을 일선 검찰청에 공유하고 수사 관련 일일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대검은 안산지검 전담수사팀과 일선 검찰청의 전담 검사를 중심으로 경찰과 수사 방향을 수사 협의하고 구속 영장 청구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송치 사건도 엄정 처리하고 범행 규명을 위해 필요한 경찰의 보완수사도 요구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협력단을 중심으로 경찰과 협력해 효율적인 수사를 전개, 부동산 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급격히 오른 공동주택 공시가격 다주택자 매물 나올 수 있을까?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9% 넘게 급등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가격이 하락한 매물이 늘어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전국 기준 19.08%로,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다.

지난해 전국에서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세종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무려 70.68%에 달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소유주들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공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돼 국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끼친다.

다주택자의 경우 오는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총부세는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돼 부담이 더욱 커질 예정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로 집을 산 젊은 층이나 갭 투자자 중에서 총부세 납부 대상인 고가 주택 보유자가 있을 수 있다”면서 “주택 공시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 이들의 부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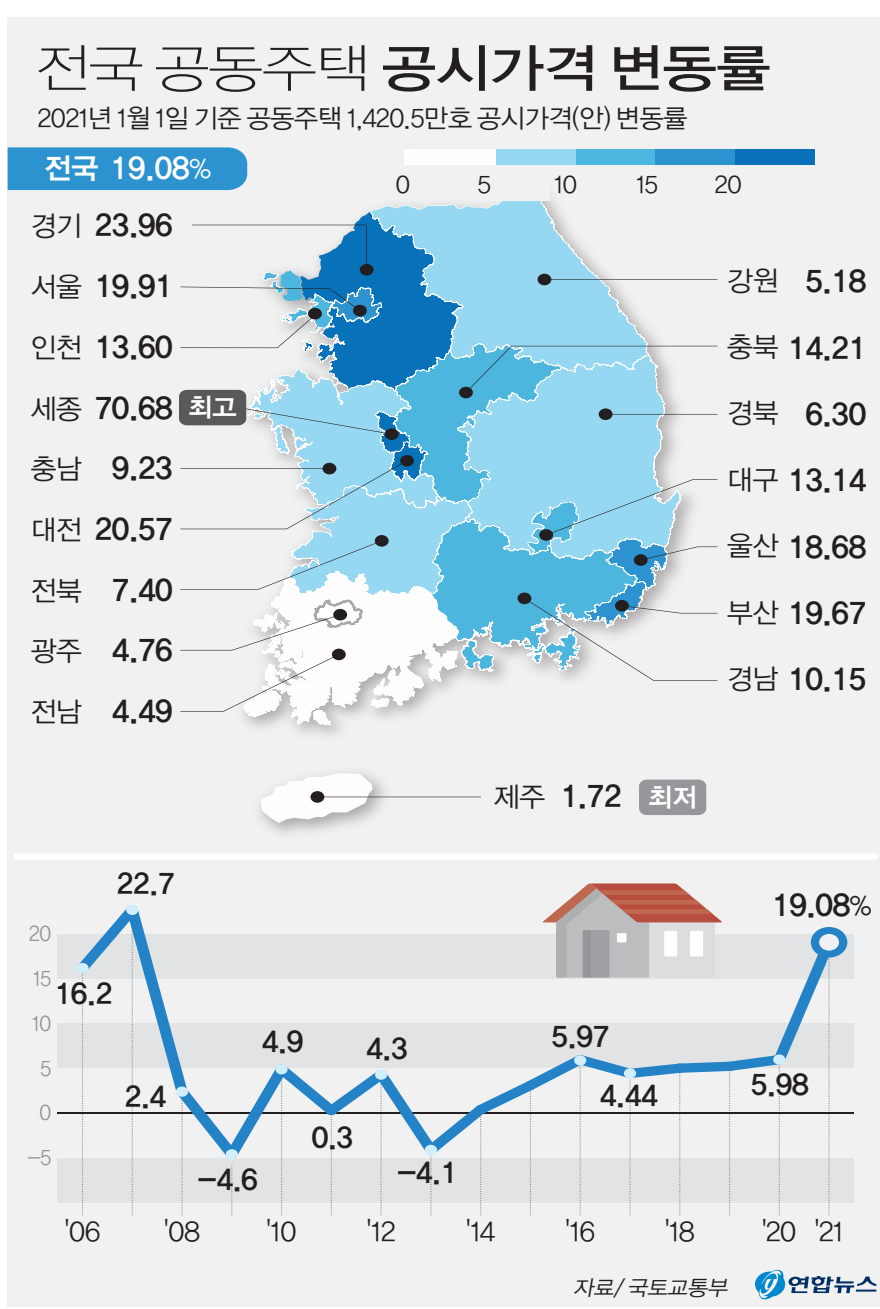
박탈감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며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공시가격은 적정가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공정한 과세 체계와 복지 제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자산 가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잇따른 공급 대책으로 최근 집값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날 급격히 오른 공시가격 발표를 기점으로 매물이 나올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내달까지 주택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수 있느냐 시장이 휘청거릴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월 1일 이후에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이 더욱 무거워지면서 매물 잠김 효과가 나타나 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 석재부

- 불상전문제작 (제주중문에서)
- 비석→ 직접가공 및 설치
- 석물→ 일절완비
- 돌하루방, 물허벅, 해녀상 일절가공
- 제주 전시장 (중문고등학교앞)
- 납골묘, 평장묘 전문

## 장례부

- 1) 1급 장례지도사 5명 보유
- 2) 장의차량 리무진 및 장의차 7대 보유
- 3) 제주의료원 협력업체
- 4) 서귀포의료원 협력업체
- 5) 24시간 출동 대기
- 6) 장례용품, 도우미
- 7) 매장 및 화장, 이장

**대표 박복현** 010-3698-0402, 010-3693-4333 E-mail. qhrgus4333@hanmail.net

# 중문 석재 장의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1834-5 Tel. 064-738-4333 Fax. 064-738-4336